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과 자매님

1967年 10月 4日 公報부등록 라-932

성도일번

대관장님의 95회 생신을 축하합니다



영감의 메시지

리글랜드 리차드 장로
(12사도 정원회)

경전의 가치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경전을 읽으시는지 아니면 책꽂이에 꽂아 두고만 계신지 또는 경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경전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며 우리와 하늘 아버지, 또 우리와 그분의 아들과의 관계를 알 것이며,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의 편전으로 데려갈 길을 마련하게 하시고 그밖에도 주가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대속하신 대속주의 크신 희생을 알 길이 있겠습니까? 주가 알고 계시던 것을 이해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서는 없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알게 될 때에 비로서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주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는 왜 이곳에 있으며, 주가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이 과연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왜 이곳에 있으며, 장차 어디로 가며, 어떻게 그곳에 도착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마치 나침판이나 항해사도 없이 대양에 떠도는 조각배와도 같을 것입니다. 물론 물 위에 떠 있을 수야 있겠지만 원하는 항구에 기항하기는 어려울 줄 압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우리에게서는 경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4권 제9호

순서

1968년 9월호

권두언 : 교회의 젊은이에게 맡겨진 임무와 사명 데이비드 오. 맥케이.....	1
예언자의 음성 알. 돈 오스칼슨.....	3
책을 태워 버리라 돈 빈센트 디 프란체스카.....	6
사이러스 다린과 천사 모로나이 삼 알버트 엘. 조벨 이세.....	9
우주에 숨겨진 비밀.....	12
관리 감독단 페이지 : 기도 존 에이취. 반덴빅.....	13
상호 부조회 : 대관장님께 드리는 생일 축하.....	15
상호 향상회 : 상호 향상회와 소녀 수상 계획	16
주일학교 : 이상과 사실의 세계를 가로 막고 있는 심연 리랜드 에이취. 몬슨.....	17
청소년 편 : 소녀와의 솔직한 토론 로버트 엘. 심프슨	20
임무와 책임에 관한 토론 린제이 알. 커티스	22
계보 : 세계 계보 세미나.....	23
외설물의 해 제이. 에드가 후버	24
선교부장 메시지 :	25
우리 소식	26

어린이 성도의 벗

기남이에게 주는 선물
과자 놀이, 나비

보안의 벽돌
만화 : 사자와 생쥐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68년 9월 1일
(통권 제38호)

발행인 : 배 일 문

편집인 : 홍 무 광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T. S. D)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가 : 50원

1년 구독료(우송료 포함)

국내 450원

국의 선박 5불, 항공 7불

이달의표지 : 9월 8일로서 95회 생신을 맞는 맥케이 대관장님의 생신을 한국 성도와 함께 축하드리며 맥케이 대관장님과 자매님을 모셨습니다.



교회의 젊은이에게 맡겨진 임무와 사명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너희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 그 자유를 지켜…」(교리와 성약 88 : 86)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 8 : 32)

이 「진리」에 담긴 근본 요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만큼 값진 축복인 자유의지——사람이 원하는대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은 발전할 수도 없으며 행복해 질 수도 없습니다.

위대한 거인으로의 인간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졌던 에베레스트 산이 인간의 발아래 정복되었다

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는 들끓었습니다. 인간의 勇氣와 忍耐는 마침내 自然의 또다른 하나를 정복했다는 기사를 만들어 내게 했습니다. 거의 반세기에 걸친 인간의 도전을 물리친채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버티던 이제까지의 준봉 에베레스트 산은 마침내 위대한 거인으로의 인간의 발아래 밟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 세기를 두고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인간은 이제 자연은 정복했으나 정복되지 않은 인간의 영혼은 아무의 손길도 닿지 않은 외계의 정복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달나라 착륙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화성 여행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대기를 정복했고 대양을 정복했으며 거리를 단축시켰고 이제는 우주로 진출을 질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인간은 自己 스스로를 제외한 모두를 정복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극기

「죄가운데 머물지 말라.」(코리와 성약 88 : 86)

선택의 자유는 여러분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權利도 여러분께 있으며 아무도 이러한 여러분의 특권을 탈취해 가지 못합니다.

세계가 이기심과 천박함과 불결함을 배척하고 보다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젊은이를 바로 이 시대처럼 요구하는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여러분이 갖고 있는 人生과 人生의 目的에 대한 態度가 내일의 여러분의 祖國의 運命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자기를 통제하되 가정에서는 화를 다스리고 과격한 이야기나 욕된 이야기는 삼가야 하며 혀를 다스림으로써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나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아울러 스스로의 욕망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류를 범하지 말라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 수는 있지만 세상의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허가된 감정이란 것을 지니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허가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젊은이들 가운데는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니 그 감정에 빠진들 어떠랴?」라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대 심리학자나 거짓된 교사, 지도자들은 자기 억제나 극기는 그릇된 가르침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방종하는 것이 극히 자연스런 삶의 方法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만 간곡히 부탁하거나 절대로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육체를 얻어 成長해 가고 있는 時點에 있음은 사실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육체를 허가하셨고 거룩한 目的을 위하여 분별 의식도 주셨으며 판단하고 극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늘 바로 판단하고 사리에 맞게 살아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씨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 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것이 생각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씨는 젊은 시절에 뿌려 집니다. 행복은 예식장의 무대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행복은 젊은 시절에, 구혼시절에 씨뿌려 집니다. 행복의 씨는 걱정을 몰아낼 줄 아는 여러분의 능력에 의하여 심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순결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배척을 당하고 그 存在가치조차 인정받지 못하며 젊은이의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결 그것은 젊은이들의 자랑스런 재산이 되어야 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도덕적인 순결에 대해서도 엄격한 표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버이들은 종교의 종파에 관계치 않고 딸자식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들은 딸 아이가 노예의 취급을 당한다든지 노리게감으로 취급된다든지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똑바로 알고 있으며 남자의 횡포에서부터 구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그러한 어버이의 아들들은 보호가 허술하며 나약한 여자 아이들을 제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와같이 적어도 두개의 표준이 있으나 교회에는 단 하나의 표준을 세워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남자거나 여자거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을 타개하려 할진대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욕정을 교회안에서 훈련하도록 해야 겠습니다. 실로 수백만이 넘는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라는 저들의 지도자의 가르침에 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수에 기독교나 고대 사상의 유산을 거부하고 믿지 않을 사람들을 합한다면 그 수효는 참으로 어마 어마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위기의 의미를 여러분은 理解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임무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를 전파하여 가르치고 범세계적인 교회 활동을 통하여 진리를 찾고자 하는 수백만이 보고 따를 수 있는 모범의 生活을 함으로써 옛날 사도 시대에 있었던 참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질 임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 젊은이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임무요, 전 세계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맡겨진 임무인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란 정당한 것에 대한 다른 사람의 간증을 아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증의 실제와 신앙의 실제를 생활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젊은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허가받은 자유의지를 참되게 행사함으로써 스스로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며 스스로를 다스리고 온 세상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힘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9代 大管長
 이며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인 데이비
 드 오. 맥케이 장로님은 오는 1968년 9월 8
 일로 95회 생신을 맞습니다. 「성도의 벗」은
 맥케이 대관장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전 세
 계의 성도들과 더불어 대관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대관장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뜻으로 「예언자의 음성」을 여기에
 실습니다.

예언자의 음성

알. 돈 오스칼슨

「오 내가 천사되어, 내 마음의 원대로 앞에 나아가 주의
 나팔로 땅이 흔들릴 음성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
 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천둥같은 목소리로 회개와 구원의 계획
 을 가르쳐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이 땅 위에 다
 시는 슬픔이 깃들지 않게 할 수 있으면만.」(엘마 29:1~
 2) 선지자 엘마의 염원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엘마와 같이 인생의 짧
 음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아무리 긴 생애를 보낸다 하
 여도 남을 변변히 돕지도 못하는 약함을 절실하게 느끼셨
 습니다. 비록 천둥과 같은 음성이나 말씀을 담은 황금같
 은 귀중한 책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그
 것을 남에게 허가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것 합
 니다. 육십 이년동안 총관리 위원회 일원으로 일하셨던 때
 에 그는 그의 말씀을 듣고 사랑을 느껴왔던 수 백만의 성
 도에게 다음과 같은 단순하고도 기본적인 간증을 되풀이
 하셨습니다.

「교회 총관리 역원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에 처음 선지
 어언 50년이 넘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당시에 저를 교회
 의 한 지도자로 지지하여 주시던 회원을 바라보고 느꼈던
 두려움과 결허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반
 세기가 더 지났지만 조금도 그런 감정은 가벼워지지 않았
 습니다. 언제나 처럼 오늘 아침에도 저는 여러분의 동정
 과 기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 * *

교회의 회원이나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마음에 두었던
 말씀의 윤곽만을 전한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
 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는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 8:6)

그리스도는 우리들 인간의 내부에 깃든 영적인 것의 발
 전을 촉구하였습니다.

「인간의 지상의 존재는 자신의 노력과 마음과 영혼을
 육체적인 본능의 위안과 회열에 집중시킬 수 있으며 영적
 인 자세의 획득을 생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가의 여부
 를 시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 * *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찾으려면 현재의 자신 보다 더
 높은 무엇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안됩니다. 「내가 곧 길이
 요 진리요 생명이니」(요한 14:6)라고 하신 구세주의 음성
 을 듣는 사람은 그 목적을 찾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음성을 따르면 그는 곧 행복을 얻거나 영생에 이르는 길
 은 달리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생이 위대한 희생
 이나 직책의 수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항상 미소를 아
 끼지 않으며 친절을 베푸는 등 조그만 일에 충실한 것이
 곧 인생의 승리이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
 게 해주며 자신의 안위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
 니다.

* * *

「우리들의 삶은 가정에서, 여러 친숙한 사람과의 교제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서 보내는 시간과 매일로 형성됩니다.

인생의 정도는 접촉할 때에 일어나오는 태도 여하로 결정됩니다. 우리들은 그 매일의 접촉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 중 숙된 것이나 영적인 것을 나타내고는 합니다. 삶은 매일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목적인 영성이란 자신을 이기며 신과의 관계를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찾는데 필요한 요소 몇 가지에 대하여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소년이었을 때에 10대의 다정한 친구와 산보를 즐기던 어떤 여름의 오후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중간 길’을 따라 싸우스 포크 계곡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길 양쪽에는 들장미가 만발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장미를 따지 않았었습니다. 왜냐 하면 여행자들의 손때로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곧 도착한 산꼭대기에도 장미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행자의 손길을 피할 수 있었던 햇볕과 아침 이슬만을 받았던 청신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더럽혀지지 않은 장미를 따서 같이 간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며 보다 더 큰 힘을 바라게 합니다. 인간 능력의 발견이나 영 속에 자라고 있는 진리를 느끼는 마음이 인생의 가장 숭고한 경험의 하나라고 하겠습니까.」(1958년 4월 4일 일반 총회에서의 말씀에서 발췌)

* * *

영생! 자신 보다 더 높은 어떤 것이—인간이 애써 찾는 위엄 보다 더 높은 어떤 것— 맥케이 대관장님이 현 세대를 향하여 반복하여 주시는 가장 비중 큰 말씀 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정의 신성입니다. 1955년 10월 11일 부리감 영 대학생들에게 대관장님은 자기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성공적인 결혼과 가정에서 행복을

저는 이 원리가 결혼의 관계에서 행복의 근저를 이루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말일성도들이 배우며 또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순결의 표준이라고 생각합니다.」

* * *

같은 말씀에서 대관장님은 특유의 유모어와 시를 인용하여 자제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요리 솜씨가 탐탁치 않은 아내에 항상 불만을 토로하는 젊은 남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다 못한 아내가 결국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요 제 요리 솜씨가 나쁘다는 건 저도 잘 알아요. 당신이 꺼려하는 것 만큼 저도 꺼려해요. 그렇지만 당신 두 잘 해보려구 붙잡고 씨름하는 저를 보실 것 아녜요?

전 결혼한 다음부터 이 붙들고 씨름 하는 것 때문에 결혼이 부담이 될 정도예요. 자제력을 좀 배우세요. 말씀 좀 참았다는 버릇을 기르세요.」

* * *

그런 다음에 대관장님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개발해야 할 단순한 조건—적응하기는 수월하고 결과는 지대한—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다음에 듣고 싶은 요소는 바로 예의입니다. 연애 시절에는 서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또 그러한 바램들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을 느끼고는 합니다. 대부분의 남녀는 결혼을 연애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영혼한 연애의 처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연애 시절에 자기의 사랑하는 여자에게 주었던 바로 그 배려를 가정에서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또한 남편이 신문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여도 자기의 사랑하는 남자에게 주었던 바로 그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생활은 평범으로부터 옵니다. ‘원하신다면’ ‘감사합니다’ ‘용서하세요’ 등이 가장 적절하며 그것으로 거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이 평범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맙니다.」

솔트레이크 테버나클에서 열린 부활절 기념행사에서 대관장님은 구세주의 사명에 관한 간단한 부활절 멧세지를 전하셨습니다.

말씀의 종결 부분에 이르러 「우리들이 믿는 예수는—(원고에서 눈을 돌려서 청중을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 *

1959년 10월 총회에서 같은 내용을 다른 방향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쓰셨습니다.」(디후 4:1~2)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디후 1:10)

* * *

「……여러 세대를 통하여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관찰하여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폭도나 되는 것처럼 독소적인 존재로 거부하는가 하면 예수 자신이나 그의 제자들을 ‘서구 세계의 정신력을 저해한 기독교적 도덕 체계의 책임자’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통찰력을 동원하고 경험을 통하여 위의 의견과는 반대로 근면, 정직, 진리, 순결, 친절 등 범을 준수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체계의 창시자이며, 인간에게는 꼭 필요하며 인간을 하나의 커다란 형제애로 결속시킬 수 있는 분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역사의 인물로는 그와 비교 될 만한 사람이 없는 완

전한 인격의 소유자로 보지만 그의 신성은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는 위대한 교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의 가르침은 현대라는 사회적인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관장님은 자기의 강한 간증으로 다음의 말씀을 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수가 적은가, 얼마나 적은가 그 분을 아버지의 독생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로,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셨으며, 세상의 죄를 한 몸에 지니셨으며,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며, 모든 불의한 것을 없애기 위하여 세상에 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 * *

끝으로 대관장님은 촛불과 등유로부터 원자력과 우주의 신비를 평생을 두고 체험으로 발견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일러 주셨습니다. 부리감 영 대학에서 행하신 말씀에서 :

「저는 진정한 마음으로, 오랜 동안의 경험에서 얻은 지식으로 이 생활의 즐거움, 희열, 행복은 그분의 왕국을 먼저 구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생긴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생애 있어서의 성심이나 심적인 만족을 갈구한다면 매일의 생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상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십시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말씀을 하거니와 조금도 변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조건의 결과는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여 드린 것에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 * *

「어느 날 산림 감시인은 나무 가지가 울창한 숲속으로 연결된 끈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이 끈을 따라 들어가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를 알아보기로 결심 했습니다. 덩굴 속에서, 나무가지 위로 따라가던 관리인은 마침내 아직도 손에는 노끈 몽치를 들고 있는 사냥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느끈은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는 ‘이렇게 울창한 숲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대하여는 종종 듣지 않습니까? 저도 길을 잃었을 경우 이 줄을 따라 제가 온 길을 다시 찾아가려는 거죠’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많거나, 적거나 간에 인정이라는 울창한 숲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방향 감각을 잃는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현명하게 안내인을 갖고 있어 (단어를 바꾸어서 정박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길을 잃거나 혼미한 인간 관계에서 방황할 때 자기의 원점을 찾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정박소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상입니다. 행복, 안전, 개성은 그 정박소의 소유로 생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왕국을 위하여 봉사, 충실한 봉사를 해야 할 인간 속으로 마약 진수할 우리들이 정박소를 정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것을 간구합니다. 아멘.」

책을 태워버리다

돈 빈센트 디 프란체스카

나는 1888년 9월 23일 시실리 섬 팔러모 주 그라테리 읍에서 조셉 디. 와 마리아 디. 마리아 프란체스카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1892년 2월 22일 세상을 떠나셨다. 그리하여 나는 형 안토니와 누이 조세핀과 함께 외가에 가서 살았다.

일곱살 때 국민학교에 입학하였다. 할아버지께서는 내가 종교적인 성품을 지닐 수 있는 훈련을 받기 원하셔서 할아버지의 사촌인 빈센트 세리오라는 분에게 교육을 받도록 주선하셨다. 나의 성경을 터득하는 속도에 감탄한 선생님은 열 한 살인 나에게 축복을 많이 받아 그같은 큰 은사를 지니게 되었다고 칭찬이 대단하셨다.

1900년 11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05년까지 그곳에서 종교학을 연구하였다. 그럴 즈음 뉴욕 시에 이민이 있던 형 안토니가 나를 미국으로 오라고 초청하였다. 나는 17세 때 나포리에서 출항하여 1905년 10월 12일 뉴욕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형의 친구 다니엘 테블론이라는 어느 신교의 이태리 지부의 목사를 만났는데 나를 자기 교회 회원을 가르치는 교사로 알선해 주었다. 그는 성경을 읽는 내 재주에 감명을 받아 뉴욕 시에 있는 닉스 대학에 다녀 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였다. 나는 충고에 따랐고 1909년 11월 24일 종교학의 학위를 받았다.

1910년 2월 추운 아침까지의 내 생애의 여러가지 사건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에 대해 늘 마음으로 염려해 주셨으리라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다. 그 날 아침 이태리 예배당의 관리인이 목사가 보내는 쪽지를 내게 주었다. 그것은 그가 아파서 자리에 누어 있다는 것과 교구에 관한 것으로 나와 의논해야 할 중대한 일이 있으니 자기 집에 와 달라는 전갈이었다.

내가 브로드웨이를 걸어 내려가고 있을 때 망망한 바다에서 불어 오는 찬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었다. 피하려고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옆으로 돌려 바람을 피했다. 바로 그 때 쓰레기 차에 버릴려고 놓아 둔 쓰레기 통 위에 책한

권이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 책 모양이라할지 제본된 품이 종교 서적일거라는 인상을 받았다. 호기심에 책을 집어 들어 쓰레기 통에다 책을 쳐서 책에 묻은 먼지를 털어 버렸다. 책은 영어로 쓰여져 있었다. 길장을 찾아 보았으나 찢어지고 없었다.

책을 손에 들고 서 있는데 거센 바람이 책장을 하나하나 넘겨 가서 니파이, 모사이야, 엘마, 모로나이, 이사야 같은 단어가 눈에 들어 왔다. 나는 매운 바람을 피하여 흙 묻은 책을 신문지에 싸들고는 가던 길을 재촉하였다.

교구장 집에서 동료 스카틸로에게 위로의 말을 몇마디 전하고 그가 병석에 있는 동안 교회 집회를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수락했다. 나의 하숙으로 돌아 오면서 내 마음은 즐곧 내 손에 들린 책과 내가 본 이상한 이름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 예언자 이사야라 하는 분은 누구일까?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분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

내 방에 돌아와 조심히 찢어진 페이지를 펼쳐 보니 이사야의 글이 나왔다. 이렇게 쉬운 글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할까? 책의 표지와 안 표지는 없었다. 나는 목격자의 증언을 읽었고 강한 간증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나 책의 정체를 알아낼 실마리는 없었다.

나는 상점에 가서 알콜과 솜을 사서 흙이 묻은 책장을 깨끗이 닦아 내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 지난 다음 그 책에 쓰여 있는 것을 읽었다. 나는 모로나이서 십장을 읽었을 때 방 문을 잠그고 책을 손에 쥘 채 무릎을 꿇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이 책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시기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였다. 나는 내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자 내 심장이 마구 뛰었고, 온화함과 즐거움이 내게 있었으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 졌다. 나는 그 책에 쓰여진 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다.

나는 교구의 예배를 계속 인도했다. 그러나 나의 설교에

는 책에서 알게된 새로운 낱말이 가미되기 시작했다. 회중은 내 말에 매우 흥미를 느꼈으므로 내 동료의 설교를 싫어 하게 되었고 왜 돈 빈센트가 하는 것과 같은 논제로 설교하지 않는냐고 질문하였다. 내게는 이것이 문제의 씨앗이 되었다. 회원들은 내 동료의 설교가 진행 되는 동안에 예배당을 떠나가 버린다든지, 내가 설교를 할 때는 열심히 듣고는 했던 것이다. 동료들이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었음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불화는 1910년 크리스마스 전야에 일어났다. 그 날 저녁, 설교하면서 새로운 책에 있는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명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설교를 마치자, 몇몇 동료가 당연한 잘못을 지적이나 하듯이 공공연하게 내가 한 말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들의 주장이 너무나 모순 덩어리여서 나는 흥분하여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반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들은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래도 시원치 않았던지 나중에는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이 위원회에 출석한 나에게 위원들은 아버지와 같은 어조로 충고를 늘어 놓았고, 그 책이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교구내의 형제애를 해치는 악마의 것이니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충고 하였다. 나는 대답하기를 여러분이 태우자고 하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간증을 했고, 페이지가 몇장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책을 출판한 교회의 이름은 알 수 없다고 했다. 또 나는 선언하기를 내가 만약 그 책을 태워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보다는 차라리 교회에서 나가는 것이 낫겠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위원회의 의장은 후에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회의를 끝냈다.

재차 위원회에 호출된 것은 1914년이였다. 부위원장은 정다운 어조로 지난번 회합 때 위원들의 신랄한 비난은 내 비위를 건들었을 것이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고 전제하고 그들 모두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언제나 아낌없이 해주던 가치있는 협조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순종—완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은 규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나에게 계속 잘못을 지적당하여 오던 위원들의 인내에도 한도가 있었던 것이고 결국은 책을 태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나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책의 말쑤

을 부인하거나 책을 태워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그 책이 속하고 있는 교회의 이름을 알게 되어 그 교회에 속하게 되는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자, 이 말에 부위원장은 「그만! 그만!」이라고 소리치며 위원회가 미리 작성해 두었던 판결문을 낭독하였다. 나는 선한 목자 교회의 목사로서의 지위 그리고 이전에 누렸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박탈당하였다.

삼주일 후에 종교 최고 재판소에 호출되었다. 이전에 내가 표명한 말을 철회할 기회를 받았으나 나는 거절하였고 최고 재판소는 위원회의 판결을 확정시켰다. 나는 이같이 하여 교회에서 완전히 추방당하였다.

1914년 이태리 육군에 소집되어 나포리항에 파견되었다. 나는 불탄서에서 전투에 참가 하였으며 일차 세계대전이 가져온 모든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였다. 나는 내가 읽은 그 책의 교훈을 회상하면서 부대에 있는 몇몇 사람에게 어떻게 암몬 백성들이 자기 동포에 대한 살육을 거절하였으며, 그 같이 큰 범죄를 저지르기 보다는 차라리 무기를 매장해 버리는 방법을 택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러자 군복은 이 사실을 연대장에게 보고하여 다음날 나는 연대장실에 끌려 가는 몸이 되었다. 연대장은 내가 병사들에게 한 이야기를 다시 해 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엘마서 24장에 기록된 대로 이야기하자 그는 어떻게 그 책을 갖게 되었는가를 물었다. 그래서 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교회에서 출판한 영어로 된 책을 입수한 경위를 이야기했다. 나는 그 책과 내용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함구령과 함께 빵과 물만 주는 영창에 10일간 갇히는 벌을 받았다.

전쟁이 끝나자 뉴욕으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내가 겪은 고난의 역사를 아는 감리교의 목사인 옛 친구를 만났다. 그는 내가 부당한 처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종교 최고 재판회의의 회원에게 나를 좋게 말해주어 드디어 평신도의 자격을 허락받았다. 그리고 실험삼아 감리교 목사를 따라 뉴질랜드와 호주로 선교사로 떠나기로 합의가 되었다.

호주의 시드니에서 우리는 이태리 이주민을 만났는데 천주교회에서 출판된 성경 번역에 잘못이 있다는 질문을 받았다. 그들은 내 동반자의 해답에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 이주민들에게 화를 냈다. 그들은 나에게도 그것에 관해서 물었다. 나는 물문경의 진실성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물문경에 기재된 땅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일과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

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것임에 저 회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니삼15 : 17)라는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그러자 어디에서 그런 교훈을 배우게 되었는가를 물었다. 나는 내가 찾아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매우 달콤한 것이었으나 나의 동료에게는 매우 쓴 것이었다. 그는 종교 최고 재판소에 보고하여 또다시 이전에 내렸던 판결을 확정지었다. 그리하여 나는 영원히 교회에서 추방당하였다. 얼마 있지 아니하여 나는 이태리로 돌아왔다.

1930년 5월 무얼 좀 알아 보려고 붙여 사전을 뒤적이다가 「물론」이라는 단어를 발견하였다. 나는 주의 길게 그 말을 읽어갔고 물론 교회는 1830년에 설립되었으며 이 교회에서 유타 주 푸로보에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푸로보에 있는 대학 총장에게 그 책의 없어진 페이지에 관해 편지를 써 보냈다. 나는 두 주일 후에 회답을 받았으며 내 편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에게 까지 전달되었다는 것과 없어진 페이지의 책에 관한 사실 그리고 그 책이 물론교회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1930년 6월 16일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은 내 편지에 회답과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께서 1852년에 선교사로 있을 때 이태리어로 번역한 이태리어 판 물론경을 보내 주셨고 영국 리버풀에 본부가 있는 유럽 선교부장인 존 에이. 윌소 장로에게 협조를 부탁했다는 것을 그 편지에 알려 주셨다. 며칠 후 윌소 장로가 리버풀에서 편지와 금판과 물론경의 출현에 관해 기록된 소책자를 보내왔다.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되어 뉴욕 시의 어느 거리 모퉁이 쓰레기통 위에 놓여 있던 찢어진 책을 발견한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 이야기의 나머지를 알게 되었다.

1922년 6월 5일 윌소 장로는 나를 침례주기 위해 나폴리로 왔다. 그러나 시실리 도의 파쇼주의자와 반 파쇼주의자 간의 폭동이 발발되어 팔러모의 경찰서는 섬 이탈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결국 그 때에 침례 받을 기회를 잃고 말았다.

그 다음 해 윌소 장로는 요셉 스미스의 간증을 이태리어로 번역해서 친부를 인쇄하라고 내게 부탁했다. 그래서 나는 내 번역을 요셉 구시오라는 인쇄인에 가져갔다. 그랬더니 인쇄인은 체파루 교구의 천주교 사제에게 번역물을 가져갔다. 신부는 그에게 인쇄하던 것 모두를 없애버리라고

명령했다. 나는 인쇄인을 걸어 법원에 고소했으나 내가 법원으로부터 얻어 낸 것은 인쇄인이 지하실 종이 쓰레기 속에 던져 버렸던 번역 원본을 내게 돌려 주라는 명령 뿐이었다.

1934년 윌소 장로가 선교부장직에서 해임되자 그 후계자인 조셉 에프. 메릴 장로와 서신 연락을 취하였다. 그 분은 2차 대전이 일어나던 해인 1940년까지 밀레니얼 스태지를 보내 주셨다. 1937년 1월에 메릴 장로의 후임 선교부장인 리차드 알. 라이만 장로가 휴 비. 브라운 장로께서 로마에 언제 좀 가실테니 거기 가서 침례받지 않겠느냐는 편지를 보내 왔다. 그런데 그 편지가 전쟁 때문에 늦게 도착해서 역시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 때 부터 1949년까지 나는 교회 소식을 하나도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충실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때가 충만한 경륜의 시대의 복음을 힘써 전파하였다. 나는 표준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태리어로 조금씩 번역하여 “안녕하십니까 새날이 밝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라는 인사말로 친지들에게 번역물을 보내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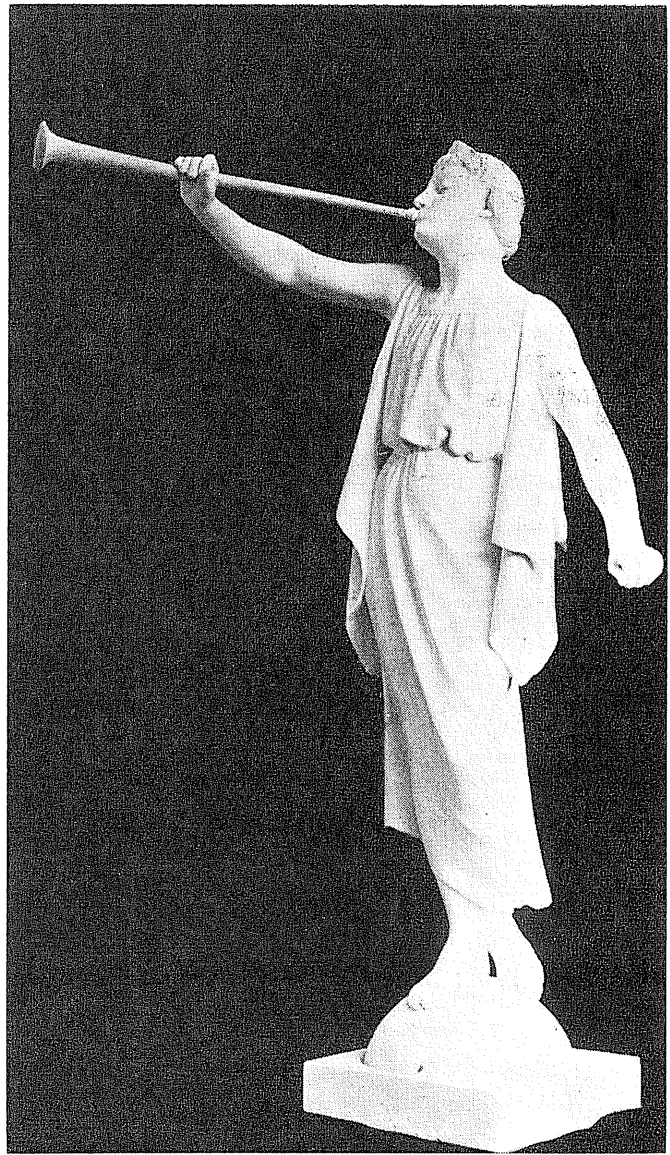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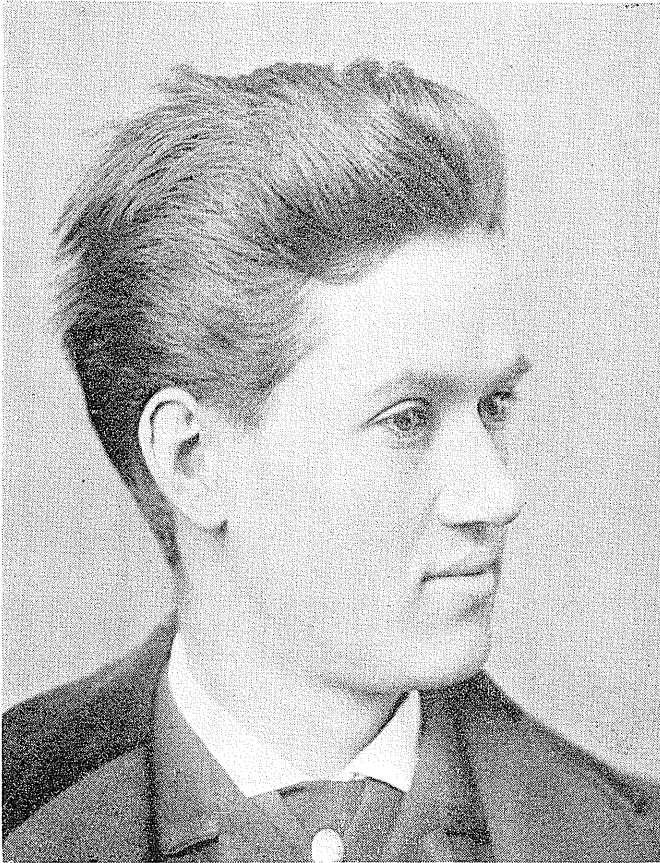
1949년 2월 13일 쏘트레이크 시 교회 본부에 제시는 윌소 장로와 서신 연락을 다시 취하게 되었다. 1950년 10월 3일자의 내 편지에 윌소 장로는 놀웨이에 가 있었다는 회신이 왔다. 그래서 나는 회답으로 내가 속히 침례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장문의 편지를 써 보냈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충실한 아들이요, 순결한 종임을 이미 스스로 증명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윌소 장로는 스위스 선교부장이신 사무엘 이. 브링허스트 장로에게 시실리 섬에 가서 나를 침례 줄 수 없겠느냐고 요청했다. 1951년 1월 18일, 브링허스트 선교부장이 섬에 도착하여 나는 팔러모 주 이메레스에서 침례받았다. 교회 기록에 의하면 분명히 시실리 섬에서 행해진 침례 의식으로는 처음이었다. 그리고 나서 1956년 4월 28일 스위스의 베른에 있는 신전에서 들어가 엔다우멘트를 받았다.

드디어 나는 내 하늘 아버지의 임재하심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나는 오랜 세월 전에 발견한 뉴욕 시의 쓰레기통 위에 놓여 있던 알지 못하는 책을 통하여 찾아 헤매어 온 참 교회를 찾음으로써 내 둘째 지체에 속 충실하였음을 증명하였다고 생각한다.

돈 빈센트 디 프란체스카 장로는 1966년 11월 18일 이태리 그레텐 (팔러모) 게스타에서 세상을 떠났다.

싸이러스

다린과



모로나이 천사. 솔트 레이크 신전 탑의 것과 같다.

천사

모로나이의

상

알버트 엘. 조벨 이세

솔트 레이크 신전의 중앙부에 우뚝 솟은 천사 모로나이 상은 말일에 회복된 영원한 복음의 고귀한 진리를 상징합니다.

이 천사 상은 1861년 11월 22일 푸로보에서 여섯 마일 떨어진 조그만 마을 스프링빌을 고향으로 태어난 싸이러스 이 다린의 작품입니다. 그는 광부 토마스 다린의 남매 중 둘째였습니다.

스프링빌 근처에는 푸트, 유테 인디안이 많았습니다. 가을이면 들에 오두막집을 짓고 겨울에는 짐승 가죽과 고기를 원주민에게 팔고는 합니다. 어린 싸이러스는 집 근처의 험준한 산이나 처럼 이들 인디안을 좋아했습니다. 하루의 학교 공부는 여러 과목을 짓혀놓고 그림으로 보내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가 다니던 학교의 장로교 목사 한 분은 미술에 빼어난 재주를 그대로 살리라고 격려할 정도였습니다. 레오나르도 신부는 증축자금을 마련키 위하여 동부에 보낼 노후한 교사 전경을 그려야 했습니다. 물론 싸이러스의 손이 필요했던 것이며 부탁받은 그는 곧 그대로 그려냈습니다. 젊은 다린은 자기 작품의 댓가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미술가가 된 것입니다.

1879년 봄, 아버지가 경영하는 유타 주 실버 시의 광산에서 일하면서 장차 푸로보에서 미술을 연구할 학자금을 마련키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일꾼 세 사람과 함께 자취 생활이었습니다. 석탄을 골라 바퀴 하나 달린 구루마에 실어 채가 있는 곳에 까지 밀고가 철회로 치는 일을 맡았었습니다. 무척이나 힘든 일였고, 이런 고된 작업이 6개월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광부 한 사람이 연한 흰색의 흙을 캐 가지고 나왔습니다. 강렬한 의욕에 사로잡힌 젊은 다린은 자기 머리를 짜내어 만든 연장으로 사람의 머리만한 모형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 진흙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주머니 칼로 나무를 깎아 무엇을 만들고 스킷치도 하던 그 집에서 말입니다. 1879년 10월에 자신의 그림과 함께 진흙 모형을 쏘트레이크 시의 박람회에 보였습니다.

이듬 해 봄, 젊은 다린의 재능에 탄복한 심버 시의 블랜샤드 씨는 쏘트레이크 시의 부유한 광산인으로 알려진 제이콥 로렌스 씨와 함께 다린을 보스턴의 조각가 트르만 에이취. 바트렛의 사사를 받기에 필요한 돈을 모금하게 되었습니다. 바트렛씨가 1880년 6월 12일 데저렛 뉴스 지에 보낸 편지에서 「그의 부친은 돈이 없는 분이기애 장기간에 걸친 학비 보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연구비는 면제되었고, 하숙비와 기타 의복비 정도의 돈만 제공해주면 됩니다. 조각에 특출한 재능을 보이고 있으며 지도만 잘 받으면 자신은 물론 기대하는 사람에게 큰 영광을 가져다 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린의 재능에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장은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1884년 2월에는 쏘트레이크에서 화실을 연다는 소식이, 6월말에는 동부로 옮겨가 공부할 계획이라는 말이, 12월에는 파리로 건너갔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1891년 6월 16일 매사추세츠 록스베리 출신의 빅토리아 콜로나 뮤레이와 결혼하여 곧 쏘트레이크로 돌아와 1894년 겨울까지를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그 동안에 조각된 부리감 영의 동상은 개척자의 쏘트레이크 제곡 도착 50주년 기념 식전에서 제막되었습니다. 대관장단 여러분의 호상을 몇 개 만든 것도 이 때였습니다.

1891년 7월 21일 관리 감독 윌리엄 비. 프레스튼, 제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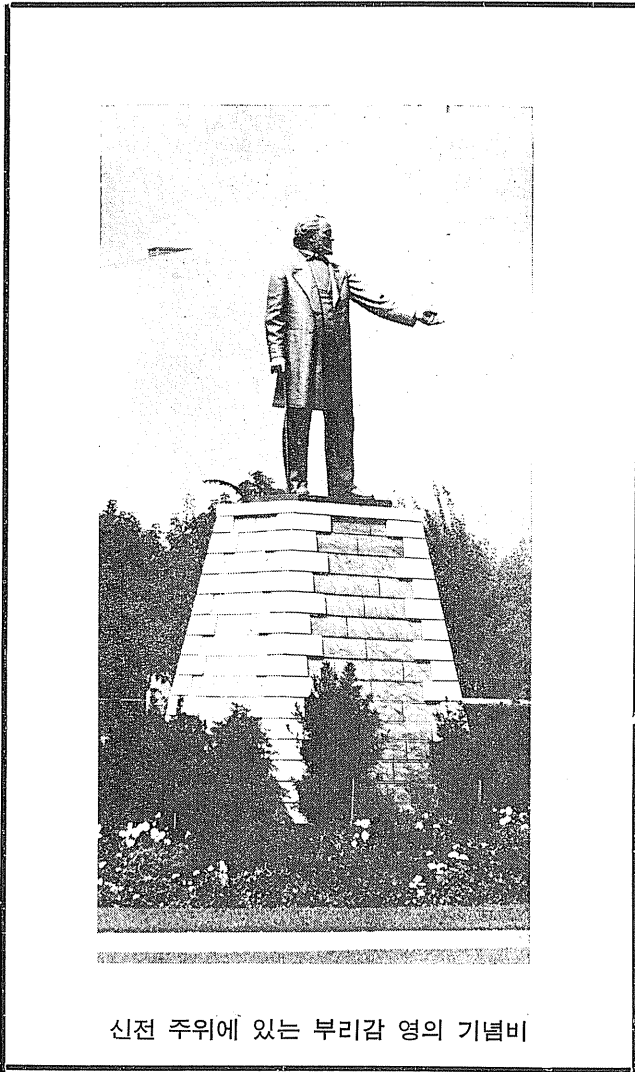
개척자의 어머니 상과 다린의 자화상과 르브레의 말의 조각

와 존 알. 윈더, 신전 건축 위원 디시 영과 다린이 함께 쏘트레이크 신전 탐에 놓여 있던 커다란 원형 돌을 올려놓을 원주형 그림을 대관장단에 제출했습니다. 역시 다린의 손으로 만들어진 나팔을 불고 있는 하늘 천사의 그림도 보였습니다.

채 한 달도 안된 8월 19일 신전탐에 대한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 대관장단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중앙 원주형 꼭대기에 놓일 천사를 제작할 때 다린의 협조가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오하이오 살렘의 물린스 회사가 24번 두드려 만든 구리로 5 2/1인치의 모형을 주조해 냈습니다.

이 회사는 물린스 제작회사라는 이름으로 오늘 날에도 있으나 불행하게도 1890년대의 기록은 없습니다. 이 회사도 케비코트 구리 회사, 이의 부속회사인 체이스 동판 회사도 24번 두드려 만든 구리를 어떻게 만든 것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속학자 중에는 1평방 휘트의 무게가 24온스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약 0,032인치의 두께로 만들 수 있음을 뜻합니다. 비교적 얇은 구리판이지만 동상 제작에 쓸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신전 주위에 있는 부리갑 영의 기념비

1892년 4월 6일 수요일, 4만으로 추산되는 인파가 신전가에 몰려 들었고, 그 밖에도 인접 거리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금빛 나래 달린 천사를 제 자리에 놓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가진 대회에서 교회 회원들은 신전을 지금부터 일년 후인 1893년 4월 6일까지 완공하여 헌납하자고 했습니다.

「나팔을 불고 있는 천사」의 이름을 두고 고심한 사람도 여럿입니다. 위의 기사를 다룬 데저렛 뉴스에서 모로나이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수년 후에 다린은 1938년 7월 30일자 「사랑하는 영 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불행하게도 이 영 씨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70인 장로 정원회 회장이었던 테위 에드가 영 아니면 건축 위원인 돈 칼로스 영인지 모릅니다.) 편지에는

「솔트레이크 신전 꼭대기에 있을 동상을 만들 때 ‘본인의 생각은 어떠했는가’를 물어오신 귀하의 편지의 회신입니다. 본인이 그것을 만들 때에는 최선을 다하여 물론 의 천사인 모로나이를 구현하고자 노력했을 뿐 그 외의 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아는게 없습니다

싸이러스 이 다린.」

다린씨는 그야말로 위대한 조각가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1896년 1월에는 국회 도서관 일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1897년 7월 신전가에서 베풀어진 개척자 동상 제막식에는 축전을 보내 왔습니다. 솔트레이크 시의 현재 위치로 옮긴 1900년 개척자의 날에는 식전의 연사로 초대받았습니다.

성년의 대부분을 보낸 곳은 보스톤이었으나 고향인 유타에도 자주 들렀습니다. 1920년 솔트레이크 시에 들린 그는 신전가에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 때에 당시에는 신전가 책임자로 일하던 에드가 영 70인 장로 정원회 회장과 만났습니다. 두 친구는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인디안에 관한 사실을 품위있고 인상적인 방법으로 묘사한 역사적인 작품을 놓고 환담했습니다. 존 제이, 맥클레관의 올겐 연주를 들은 다음 갈매기 동상 옆 의자에 앉아 황금색 동상을 바라보며 새로운 감회에 잠겼습니다.

「천사 모로나이」 상으로 저는 어느 때 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다린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하늘 천사와 함께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현재의 자신과 생각하는 것 만을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1932년 7월 24일 유타 주 스프링빌에서 거행된 개척자 상의 제막식에 초대되어 어머니에 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어머니에겐 어려움이란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사랑을 두룬 벽이 사랑으로 가득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1934년 6월 유타주에 다시들려서 22시간에 걸친 비행기 여행을 1850년 초기에 3개월에 걸쳐 대평원을 횡단한 여행과 비교하였습니다. 「오늘의 제가된 것은 아름다움을 사랑하신 어머니 때문입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진흙으로 여러 가지 모형틀을 만들어 구어내셨습니다. 유전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미술을 좋아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케치를 하고 모형을 만들고는 했습니다. 아버지 또한 격려가 대단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에는 실패도 뒤따랐습니다. 1884년 보스톤에서 공부하던 그는 젊은 학생으로 바울 르브레에 말의 석고상을 만들었습니다. 솔트레이크의 자기화실을 찾는 방문객에게 보스톤에서의 일을 생각하며 성공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는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884년 이후로 다린은 매년 시 행정 당국에 자기가 만든 동상을 채택해달라는 부탁에 게으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1940년 1월초—55년 후이지만 조지 로버트 화이트 재단 이사장인 모리스 제이. 토빈 시장은 78세의 노 조각가에게 르브레의 경마장 시발점 옆에 세워질 동상이 27,500불에 계약된 것을 통고해 왔습니다.

유타 출신의 미국 조각가 협회장 싸이러스 에드윈 다린은 매사추세츠 알링턴의 자기 집에서 83번째의 생일을 8일 못산 1944년 11월 14일에 별세했습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과 두 아들이 있습니다. 또 한 아들은 세계 제일차 대전 중 불란서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회 관리 역원 여러분이 푸르보와 옥든 시에 신전 건립 계획을 추진중이시니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다. 물론 건물을 완성하여 헌납하기 까지는 몇 년 더 있어야 할테지만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는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소리가 세계 전역에 울려져 있는 성도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물론 지상에 사는 백성에게 어려운 때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땅이 진동할 때 큰 도시와 땅이 멸망하며 아울러 인간의 요소를 잃어야만 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나 충실한 자에게는 이것이 종말은 아니다.

우주에 숨겨진 비밀

그리스도가 친히 세상을 다스리실 복천년의 삶을 즐길 수 있으며, 부활한 다른 영과 함께 섞여 서로의 의견 등을 교환하는 바람직한 날을 맞을 것이다. 사탄과 그의 능력이 무력하게 되는 신전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기르며 주님의 일을 할수 있는 기회란 얼마나 훌륭한 것일까!

윌포드 우드럽 장로(후에는 교회 대관장이 되심)는 1877년 9월 19일 솔트 레이크 태버나클에서 행하신 말씀에서 :

「구세주가 오신 후의 천년은 이 구속 사업에 쓰여질 것입니다.

이 요셉의 땅에—북미와 남미—, 구라파와 기타 각처에 많은 신전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셈, 햄과 야벳의 후손은 구세주가 「이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라는 말로 이 지구를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합당한 의식을 치루어야 합니다.」(설교집 제19권 230페이지)

부리잡 영 대관장은 「우리의 죽은 자를 구원해야 한다는 사업의 시급함에 비추어」신전을 빨리 그리고 많이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설교집 제2권 138페이지) 또한 수많은 신전 건립을 약속하셨다. (설교집 제 10권 254페이지와 제3권 372페이지 참조)

당시 대관장단 제2보좌로 수고하시던 찰스 더블유. 펜로스 형제님은 1918년 4월 5일 대회에서 행하신 말씀 가운데서 :

「…… 그러나 영광에 가득찬 복천년이 이르게 되면 이 위대한 시온 땅(미국)의 여러 곳에, 이 대륙의 북에서 남에 이르기까지, 신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은 계속될 것이며, 한편 우리의 후손 중에는 시온의 산 위에 설 자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대회 보고 1918년 4월 16페이지)

요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신전은 「구라파에도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Der Stern 지 1906년 332페이지) 데이비드 오, 백케이 대관장은 스위스 신전은 구라파에 세워질 여러 신전중 첫번째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테저렛 뉴스지 1953년 4월 3일)

복천년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된다. 재림의 시기는 우주에 숨겨진 비밀에 속한다. 하늘의 천사조차 이를 모른다. 그러나 경전에는 이에 선행되는 예언의 증거가 적혀 있다. 충실한 성도는 이를 공부하고 깊이 생각하여 아는 바이다.

오늘날 교회 회원의 사명은 잘 나타나 있다. 칠레 떠나 혹은 그 밖의 곳에서 맺은 성약에 따라 살며 매주일 성찬을 취하므로 이 성약을 새롭게 하며, 와드나 스테이크에서, 선교부나 지부에서 충실히 일하며, 가족이 의로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계보 연구와 신전 의식에 참여하여 「시온 산의 구세주」가 되도록 하며, 미래에 관하여 부질없이 조바심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엘마의 표현을 빌리면 이 생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준비를 하는 시간」(엘 12 : 24)이다. 물론경의 다른 선지자의 말씀에는 「보라 내가 이제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함은 너희로 지혜를 배우게 하여,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다. (모사이야 2 : 17)

젊은이에게 주는 말씀

기도

존 에이취. 반덴빅

젊은 남녀가 일상 생활 문제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성숙했다는 징조이다. 많은 위인들은 주님으로 부터 도움을 받거나 지시를 받지 않으면 그들의 노력은 헛되다는 사실을 배워 알고 있다. 벤자민 푸란크린은 국회의 의회 순서 중에 기도를 포함시키는 것을 헌법으로 정하자고 국회의원에게 역설하면서 이같이 말하였다 「여러분, 저는 오래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면 살 수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사를 통어하신다는 진리를 더욱 굳게 확신하게 됩니다.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터는 이 의회에서 매일 아침 의사를 진행시키기 전에 하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 우리들의 호의에 하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영화감독 세실 비. 데밀은 기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입니다.」 성경 기록자인 욥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혹독한 여러 시련을 겪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그의 재산, 가족, 건강, 친구 모두를 잃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불요 불굴의 신앙을 간직했다. 욥의 클은 여러가지 위대한 영적 통찰력을 얻게 한다. 동시대인 몇몇에 대한 욥의 코멘트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것을 잘 그려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의 말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그 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으랴.」(욥21 : 12 15)

많은 재산, 의학적인 진보, 많은 오락 시설 등을 누리며 형통하게 사는 사람은 아마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해야 할 지속적인 필요성을 무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으랴」고 욥의 동 시대인의 이야기를 메아리치고 있다.

인생을 살아 가는데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필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사실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우리 생활에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효과적이 되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한다. 어린아이로서의 기도는 배운 어구를 단순히 반복하는데 불과할 것이다. 성인으로서의 기도는 좀더 깊이가 있고 좀더 의의가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다.

기도를 시작함에 앞서 기도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하겠다.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심각하고 뜻이 깊은 의도를 지니고 있어야 하겠다. 우리의 기도가 효과적인 것이 되려면 완전한 신앙과 겸손으로써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다가선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첨가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신뢰감을 나타내 보이며 인간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겸손과 신앙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접근할 때는 우리가 얻으려는 도움이 어떠한 모양의 것인지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물몬경에 나오는 아물렉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의 권고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라. 능하사 너희를 구하실 분이다.

스스로 겸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가 들에 있을 때는 너희의 양 떼를 위해 기

도하고

너희가 집에 거할 때, 아침 낮 밤으로 너희의 권속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께 너희 원수의 권세를 막아 주시도록 기도하며,

모든 의의 원수, 악마를 막아 주시도록 간구하라.

수확이 풍성하도록 너희 들에 있는 곡식을 위해 기도하며,

너희 들에 있는 가축이 번성하도록 기도하라.

뿐만 아니라 너희 꼴방이나 은밀한 장소나 광야에서 진심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소리 내어 주께 외치지 않을 때는 너희의 복리와 너희 이웃의 복리를 위해 끊임없이 주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라.」(엘마34 : 18~27)

이같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의로운 노력에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짧은 남녀로서 ①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전에 우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②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주께서는 경전 가운데서 효과적인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의 역할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셨다. 이러한 말씀 주께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설명하신 글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 올리버는 번역하는 은사를 구하였으나 주님께서 그의 소원을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자기의 역할을 완수하지 못했다. 주께서는 기도에 관해서 올리버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를 주셨다. 「보라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나니, 깊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네게 줄 것으로 여겼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마음 속으로 깊이 연구해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해야 하느니라...」(교성9 : 7~8)

우리의 기도가 의미 심장한 것인지 아닌지를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일이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 자신의 이해력에 기초를 둔 결정을 내린 다음 하나님에게 기도로 다가가서 우리의 결정을 확정해 주시거나 승인하시지 않으신다는 해답 얻기를 기대하신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결정을 확정하시거나 승인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질문이 생긴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앞서 언급한 올리버에게 주쁜 훈계에 다음과 같은 지시를 마련해 주셨다.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 그러나 옳지 아니한 일이면 그 같은 느낌이 없고 다만 무감각해져서 옳지 아니한 일을 잊게 하리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게 하려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역할을 완수하고 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식별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의 속삭임에 민감해야 한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고 주님에게 완전히 의지하여 성령의 속삭임에 따른다면 우리가 받는 응답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시련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기도할 수는 없고 그러한 시련과 맞부딪치는 성격 그리고 극복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청하는 것을 배우기 바라 마지 않는다. 또 백케이 대관장께서 아름답게 설명하신 것 같이

「나는 여러분께서 어느 날엔가 여러분의 심금을 울려 주는 듯한 열망, 난공불락 처럼 보이며 극복할 수 없는 듯이 보이는 성벽을 넘고야 말겠다는 열망을 갖게 되기 희망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말은 바 사명이 그 성벽 넘어에 있다면 물러서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마 여러분께서는 해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런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 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성경 저자 야고보가 말한 바를 행하십시오. 즉 '하나님에게 권능을 구하라. 구할 뿐 만아니라 신앙을 더하고 너희가 할 수 있는 바를 행할 능력을 더하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교회의 전 스테이크와 선교부의 상호 부조회 자매들은 이 9월의 큰 날을 마지하여 다함께 데이비드 오. 벅케이 대관장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언제나 그분의 훈계는 자매들이 가정에서, 상호부조회에서, 그리고 영적, 문화적인 면에서의 발전에 크게 작용하여 왔습니다. 그분의 위로와 격려와 영감의 말씀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매들에게 길잡이의 빛이 되어 왔습니다.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의 이번 95회 생신으로 그분이 만일에 예언자를 주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교회 회원의 감사와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상호 부조회 자매들은 바라며 기도하는 바입니다.

자매들에게 주신 벅케이 대관장님의 권고의 말씀 몇가지를 아래에 실어 온 세상에 있는 상호 부조회 회원으로 하여금 신앙과 지혜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데이비드 오. 벅케이

모성

어머니로서의 친직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다. 모성은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모든 직업중에서 가장 위대하다. 수백만의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걸작품을 그릴 수 있거나 책을 저술할 수 있는 여자는 인류의 갈채와 찬사를 받을만 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채색이 희미해지고 책과 동상이 파괴되어 버릴 정도의 오랜 세월이 흘러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불사 불멸의 영혼을 지닌 건장한 아름다운 아들 딸을 성공적으로 양육해 낸 어머니야말로 인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받을 가치가 있다.

어머니의 영상은 어린 자녀의 마음이라는 위에 처음 새겨진다. 처음으로 포근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어머니의 애무이며 어머니의 입맞춤은 애정을 인식하게 해주며 어머니의 동정심과 온유함이 이 세상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신시켜 준다. 어머니와 어울려 지내는 유아시기에 심어진 세심한 어머니의 영향력은 시들어가는 장미꽃에 남아 있는 향기 처럼 그의 온 생애를 통하여 사랑과 기억에 스며드는 것이다.

어머니라면 아름다움, 결손, 성실, 동정심, 명량성, 경건 기타 많은 고상한 덕성을 반드시 지녀야 한다. 그녀의 민감하고 상냥한 영향은 인류의 발전과 운명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가정

결합되어 있고 협조적이고 사랑이 깃든 가정은 바로 지상의 작은 천국이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말씀드리거니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집안에서 한번도 의견의 불일치로 다투는 일은 없다는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조화, 선의, 일치, 상호 이해는 모든 가정에서 길러야 할 덕성이다.

모범은 교훈보다 영향력이 크다. 부모는 예절, 성실, 절제, 그리고 어느 때를 막론하고 의를 행할 용기 등 자기 자녀에게 바라는 것 만큼의 덕성을 먼저 지녀야 할 의무가 있다.

가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예술이다. 처음에 얼핏 생각하기에 가정을 이끌어 간다는 일에 관련하여 예술이라는 말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은 도달하여 얻을 수 있는 재예 중 가장 큰 것이다.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기술이란 아름다움, 순수성, 유덕을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미움, 가식, 악덕을 본능적으로 피하게 하는 영혼의 고상함을 어린이의 생활에 불어넣어 줌을 뜻한다.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예술중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두 예술가의 활동과 기술이 나타나야만 한다. 만일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한다면 그들의 노력의 결과는 실패밖에 없다. 만일 그들이 매일의 창조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조화를 이루며, 서로의 부족을 메꾸어 주면서 일한다면 그 결과는 인류에게 층해나 저주의 대상이 될 사람이 아닌 신망과 장식이 될 소년 소녀 같을 것이다.

개인적 덕성

감사는 큰 덕성이다. 보다 자주 서로가 감사를 표하는 가정에 속한 가정의 아내는 더 행복해 질 것이요 남편은 더 친절해 질 것이다.

자녀를 훈육하는데 있어서의 자제력: 나는 자녀의 행동에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아 마구 휘도록 내버려두어 다른 식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도록 둘 것이 아니라 적절한 지식과 통제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잔인하게 대하라고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것은 불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께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나는 뜻하고 있는 것이다.



대관장님에게 드리는 생일 축하

1968년 9월 8일



상향회와 소녀 수상 계획

심장의 고동수, 눈을 깜박이는 회수, 아름다운 머리카락, 그리고 용모에 대한 통계가 계산될 때가 있다면 그것은 소녀 프로그램 속에 들어 있을 것이다. 교회 관리 감독단에서는 소녀를 위하여 21년전, 소년을 위한 아론신권 시상계획과 비슷한 성격의 수상 계획을 창안하였다. 교회의 대관장단은 스테이크와 와드, 선교부와 각 지부의 청년 상향회에서 교회의 소녀 시상계획을 주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본 수상 계획을 두는 주요 이유는 모든 소녀가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가를 아는데 있고, 소녀들의 활동과 출석 상황을 기록 보관하며, 교회의 모든 집회와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소녀를 표창하며, 애정에 찬 관심으로 교회에 비 활동적인 소녀를 돕는데 있다.

상향회 신회기의 첫 상향회 집회에 참석한 12세 이상의 소녀의 이름을 소녀 수상 계획 기록부에 기재한다. 황색 카드(신상 기록 카드 재고 번호 CC-065)에 그녀에 관한 사항 즉 부모의 성명, 생년월일, 특기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한다. 그 때로부터 육년동안 매주 그녀가 출석한 집회 참석수, 봉사 시간수, 이야기한 수, 그녀가 받은 상 등에 관해 기록한다.

만일 그 소녀가 다른 도시, 도, 또는 외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황색 카드는 따라 다닌다. 이 카드에는 최근의 것까지 기재되어 분실되지 않게 취급해야 한다. 이 카드는 통계의 구실뿐만 아니라 어느 의미로 보면 「살아 있는 것」으로서의 뜻을 갖게 된다.

비 회원 소녀는 자신이 원하면 수상 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 개인상을 타기 위해서는 똑같은 필수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지방에 살던 소녀가 대도시로 이사하여 소속 지부를 떠나는 수가 종종 있다. 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낮은 사람 사

이에서 생활해야 되는 소녀에게 미리 새로운 지역에 관한 예비 지식을 붙여넣어 주지 않는 경우 위축된 마음에 눌러 상향회에 참석을 꺼려하게 된다. 그러나 소녀 수상 계획에 입각하여 관심을 가져주고 애정에 가득찬 교사나 청년 상향회 역원의 협조가 있는 경우 곧 새로운 모임 분위기에 친숙하게 될 것이다. 와드 및 지부 서기가 즉시 회원 기록 카드를 스테이크 또는 지방부 서기에게 발송하고 이를 접수한 선교부 서기는 해당 지부에 신속히 전달하여 새로운 회원을 맞아 들일 준비에 임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으로 서로 유대관계를 갖게 되면 회원을 절대로 잃지 않게 된다.

소녀들은 매 해 적어도 열 시간의 특별한 자선 봉사 활동을 한다. 보수는 물론 타인을 위하여 이기심을 버리고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이 활동에 시간을 바친다. 봉사하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대되는 만큼의 봉사에 전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서이다. 여기에서 말한 봉사 경험은 통상 가정에서 수행해야 할 집안 일과는 별개의 것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향한 뜻있는 봉사 활동을 경험한 소녀는 항상 그것을 행복한 경험으로 기억할 것이다.

상향회 회기말 마다 그 소녀가 주일학교, 상향회, 성찬식에 적어도 36회의 참석, 봉사 활동의 완수, 교회 집회에서의 이야기, 상향회 활동의 참여, 순결한 생활, 십일조의 헌납, 지혜의 말씀의 준수 등을 완수했으면 「개인상」을 받게 된다. 개인상을 일회 획득한 사람에게는 개인상 획득자임을 표시하는 핀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소녀는 일년에 한번씩 개인상을 탈 수 있다. 일곱개의 개인상을 탄 소녀는 7년 소녀 프로그램의 금 또는 은 메달을 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소녀 각 개인은 모두 특별하다. 자신에게 특별할 뿐더러 양친에게 교회 지도자에게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도 특별하다. 모든 소녀는 특별한 관심 이해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며 이로써 참으로 중대한 목적을 지닌 고귀한 개인임을 알게 될 것이다. 청년 상향회 역원은 소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염려하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 그녀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개인적인 관심을 기울인다. 상향회 꿀벌반, 장미반, 월계반은 모두 소녀 프로그램을 촉진시키는 수레바퀴이다. 소녀들은 청년 상향회 역원의 도움과 조언을 구한다. 역원이 소녀들의 지도자로서의 신성하고도 중대한 책임을 도맡을 때 그것은 그 역원의 인생에 있어서 훌륭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역원은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모든 소녀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을 키워주며 행복한 생활을 갖게 해 주는 일에 정진한다.

감독이나 지부장은 그 직에 임명되면 곧 그 프로그램을 자세히 설명한 소녀 수상 계획 안내서를 한 권 받는다. 누구든지 개인 소유용으로 그 책자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서적 배부처에 주문하여 구입할 수 있다.

주일학교 페이지

이상과 사실의 세계를 가로막고 있는 심연

리랜드 에이취. 몬슨

심리학자 손다이크는 「행위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우리 인간은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방향에서 지식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우리가 공과 반에서 주로 토론으로 반원을 이해 시키려할 경우에 복음의 원리를 암기하고 또 토론을 잘하는 젊은이를 만들 수 있다. 이에 예외가 없다.

그러나 복음의 원리를 토론하는 방법으로 이해시키려 할 때에는 꼭 그들이 토론한 그 복음의 원리를 매일의 생활에 옮기겠다고 하는 결심을 굳게 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흔히 반원이 방금 토론한 원리대로 생활하겠다는 의욕이 대단한 채로 공

과 교실을 떠난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이 훌륭한 결심을 어느 정도 실현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한 원리를 생활에 적용하여 생활 태도가 바뀐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교사로서의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생각이나 의도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수 있는가를 가르쳐야 한다.

행위의 원리

교사로서의 우리는 반원이 결심하는데 그치도록 해서 안된다. 손다이크의 행위의 원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한다. 반원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르쳐 일상 생활에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해야 한다. 이것은 소년단원을 가르치는 방법이다. 그러나 주일학교에 참석한 회원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방법을 응용해야 할 것이다.

그부터 등까지를 배웠다. 막히지 않고 외울 수가 있다. 그러나 이를 등에서 그까지를 거꾸로 외려할 경우에는 어떤가. 약간 힘도 들고 시간도 더 걸린다. 우리는 우리가 익힌 대로 사용하려는 습관이 있다. 반에서 토론을 주로 하여 복음의 기초 원리를 터득한 사람은 토론은 잘 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주일 동안에 배운 원리를 실제로 실행한 사람은 복음을 그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기독교의 원리에 입각하여 살아야 하는 우리인 것이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야고보서 1 : 22~25.)

복음의 원리로 생활의 변모를 꾀하는 방법은 첫째로 매 공과에 꼭 「익혀야할 목적」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 목적은 반원이 한 주일 동안을 행동하고 말해야하는 것이어야 한다.

몇 년 전에 예일 대학의 어네스트 리곤 박사의 강의를
참관할 특권을 가진 적이 있었다.

여덟명의 젊은 이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었다. 17, 18세의 젊은이들이었다.

처음 10분을 이야기의 내용을 알게하는 토론시간으로
사용했다. 나머지 35분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원리
를 생활에 옮기게 하는 숙제를 내주는 시간으로 보냈다.
처음에 존을 향하여 질문을 던졌다. 「존군은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겠나?」 존은 대답하기를 「저는 농
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구 존경하는 코치도 모시구 있
구요. 그런데 제 친구 하나는 참 농구두 좋아하고 잘 하
는데 코치와 뜻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일에
는 친구와 코치 사이에 놓여 있는 어려움을 제거하여 선
한 사마리아인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리곤 박사는 주머니에서 조그만 카드 한 장을 꺼
내어 존의 부모에게 존이 친구와 코치 사이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짤막한 편지를 썼다.
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개인의 인격 형성은 절대로 주일학
교 공과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박사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의 협조를 구하는 편지를 쓰는 것
이다. 가정과 주일학교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에

비로소 인격의 성장, 발전을 꾀할 수 있다.

리곤 박사는 반원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의견을 주고
받았다. 공과반을 나서는 반원은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인
의 경험을 쌓기 위한 숙제 한 가지씩을 갖고 있었다.

복음을 생활의 길잡이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이진리
를 곧 생활에 옮기는 방법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된다.
교사로서의 이러한 책임을 완수할 경우에 우리의 가르침
은 「위험한 영역」을 벗어나 「완전한 영역」에 들어간 것이
라 하겠다.

우리는 생활속에서 배워야 할

생활을 통하여 여러가지를 배운다. 복음의 간증은 그에
따라 생활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예수도 생활에 적용하
여 보고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라고 하셨다. 예
수는 성전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하면 이 교
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고 가르치셨다. (요한 7 : 17)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행위가 현명한지의 여부를 알
기 위하여는 위의 말씀을 시험에 옮겨 보면 알 것이다. 잘
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과정에 용서의 원리를 배우게
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겸손한 사

성찬식의 전주곡

Melvin W. Dunn

람에게 찾아 드는 화평을 맛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생활로 배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도로서 로의 글을 인용하면 :

아이가 비판속에 살 때 욕을 배우며,
아이가 적대감속에 살 때 싸움을 배우며,
아이가 공포속에 살 때 편협한 마음을 배우며,
아이가 동정속에 살 때 자기 연민을 배우며,
아이가 조롱속에 살 때 수집음을 배우며,
아이가 질투속에 살 때 죄의식을 배우며,
아이가 관용속에 살 때 인내를 배우며,
아이가 용기속에 살 때 확신을 배우며,
아이가 칭찬속에 살 때 감사를 배우며,
아이가 타인의 용인속에 살 때 사랑을 배우며,
아이가 남의 지지를 받으며 살 때 스스로를 좋아하게 되며,
아이가 타인의 인정속에 살 때 목적을 갖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배우며,
아이가 정직속에 살 때 진리가 무엇인가를 배우며,
아이가 공평속에 살 때 정의의 배움을 배우며,
아이가 보호속에 살 때 자기 자신과 주위 사람에 대한

신뢰를 배우며,
아이가 다정한 가운데서 살 때 세상이 살기에 좋은 곳으로 생각을 갖게 된다.

우리는 생활을 통하여 배운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산상수훈에 나타난 세 단계를 통하여 적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배우게 된다. 자신이 실제로 십일조를 헌납하는 과정을 통하여 십일조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물에 들어가 수영을 해봄으로, 농구를 하여 농구를 배우는 것처럼 겸손한 행동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는 것이다.

복음 원리를 행동에 옮기게 함

우리가 실제의 생활을 통하여 배울 수 있다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주일학교 교사는 그 주일에 배운 원리를 반원의 행동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45분간만을 교사로 일하는 사람은 훌륭한 교사로서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복음의 원리를 생활에 적용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교사가 추상적인 도덕 원리를 실 생활에 옮겨 놓을 수 있을 때 반원의 배우는 속도는 놀라운 것이다. 우리는 생활을 통하여 배운다.

10월 성구암송 및 이분반 이야기

6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3일 히브리서 12장 5~8절 (인내)

20일 신명기 5장 19절 (제8계명)

27일 고린도 전서 15장 40~41절 (영광)

이사야서 29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중의 지혜자와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 지리라.」

신앙개조 제11조

요한 1서 3장 15~20절 (형제애)

마태 12장 11~12절 (안식일)



〈청소년 편〉

소녀와의 솔직한 토론

로버트 엘. 심프슨(관리 감독단)

근래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저녁 충실하고 훌륭한 한 교사가 월제반에서 신중하게 준비한 공과를 가르치다가 정규교제에는 들어있지도 않은 불사 불멸의 비극에 관해서 토론을 전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공과 시간이 반쯤 지났을 무렵 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교회 주차장 쪽에서 실새 없이 들려 왔습니다. 한참을 그러더니 젊은 남자가 타고 있던 차는 그대로 질주해 가버렸습니다. 영감에 찬 토론이 끝나자 눈물을 흘리는 그러나 감사의 정이 넘치는 한 학생이 교실을 나가는 사람들 뒤에서 머뭇거리고 있다가 교사에게 비밀을 털어 놓았습니다. 자동차의 경적은 그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 때 그녀는 말하기를 「저는 오늘 저녁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저녁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경적소리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씀과 말씀하시는 그 태도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과오를 범하지 않게 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 일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꼭 6년 반 전에 부라운 감독과 저는 새로운 관리 감독단에게 지시하시는 맥케이 대관장님의 중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말씀 중에 반덴버그 감독에게 그의 주요 책임은 온 세계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를 돌보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살아 계신 예언자의 입술에서 가장 분명한 지시가 있었습니까. 「감독, 당신은 해당 연령의 소녀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6년 반 전의 확고하고도 부드러운 지시의 정신으로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소녀들 눈에는 별이 반짝이고 마음에는 커다란 희망을 품은 그러나 빨리 움직이고, 성급하고, 변화 무쌍한 사회 속에서 너무나 복잡한 사건의 연속 속에서 마음에 불안을 금치 못하는 젊은 여성 여러분에게 「소녀들과의 솔직한 토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주제를 전개함에 있어서 제 마음속에 간직한 기도— 여러분 소녀들이 저의 요청을 여러분의 가정, 꿈, 열망이라는 개개인의 세계에 비추어서 생각해 줄 것과 여러분의 행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잘되기를 갈망하는 친구로서 저를 환영해 주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물을 온유하게, 사물을 사랑스럽게, 사물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는 마음씨를 지닌 모든 정상적인 젊은 여인의 심중에 있는 성취하고자 하는 영원한, 그러나 도달하기 어려운 희망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후보생에 대한 온유한 생각, 충성되고 영원한 우정에 대한 사랑스런 생각, 친절하고도 사랑 많으신 하늘 아버지의 딸에게만 주시는 거룩한 사명에 대한 영적인 생각을 지닌 여자에게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러분은 불과 몇년 전에 떠나 온 하늘 아버지로부터 개인적으로 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 무엇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해.」라고 어느 소녀가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좋은 해답의 하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하늘 아버지로부터 지명받아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질서의 집이요, 여러분은 질서와 계획의 일환으로서 개인적이요, 직접적인 임명을 받아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중대한 것입니다. (창1:27) 여러분께서 이 단순한 진리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를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고와 행위는 모두 여러분이 그분의 지식의 일부분이라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체의 아버지시라는 지식, 여러분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 이것으로 이치를 논하거나 생각하며 주권과 영원한 영광을 획득할 권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조건,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조건하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용이람! 무엇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아야 해.」 젊은 여성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과 같은 분들 없이는 생은 정지되

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좌절되어 버릴 것입니다.

젊은 여성들 중에서 몇분이나 여자에게는 창조와 가능성 즉 하나님께서 앞서 창조하신 영체를 위하여 육체를 마련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지닐수 있는 영예중 이 보다 더 큰 영예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것은 생의 과정을 영속시킴에 있어서 하늘 아버지와 같은 동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굉장한 사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원대한 계획 완수의 길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미리 숙고 되고 계획된 것이어야 하지 충동적이어서는 안됩니다. 이 거룩한 과정은 합당한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에서는 레디오 하나를 새로 샀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레디오를 켜 보려고 야단하다가 식구중 한 사람이 레디오에 딸린 소책자에 크게 인쇄된 글을 읽고 식구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레디오를 켜기전에 이 지시 사항을 주의깊게 읽어 주십시오.」라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발견한 것은 부적당한 전원에 프라그가 끼워져 있지 않나 알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고장이 생기면 수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레디오의 적절한 사용, 보존에 관한 중요한 사실 몇가지를 알아 보았습니다.

면면이 이어져 온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의 생활에 관한 강력한 지시가 주어져 왔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행복과 성공을 누리시려면 이 여러 교훈을 이해하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인간의 생이 40달라 짜리 레디오만 못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경기를 하려면 그 경기의 규칙을 알아야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특별한 축복을 원하시면 그 축복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기꺼이 준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교성 130 : 20~21 참조)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며 보내도록 되어져 있지 않았읍니다. 예언자들은 출판된 책중에서 가장 위대한 교훈의 지침서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경전에서 인생의 지침 생활의 규범, 그리고 모든 난제의 해답을 발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비존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나니」(잠언 29 : 18 참조)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적절한 음식을 먹으며 적당하게 휴식을 취하며 정력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활동의 적응만을 염두에 두어 건강과 전전한 정신에 위배되는 장벽을 쌓는 일에 스스로 참여하며 동시에 하나님과 동업자가 되기 위한 육체적인 준비의 의무를 저버린다는 것은 저의 사고 방식에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젊은 여성 여러분, 담배 피우는 어머니의 경우 사산율이 40 퍼센트나 높다는 최근의 통계보고를 읽어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40퍼센트나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 3 : 16~17)

사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훈계를 무시하여 자신을 멸하게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 하니라」(고전 11 : 11) 이것은 승영에 참여하는 남녀를 동등하게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2+2=4 와 꼭 같은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불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도덕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

덕률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보시기에 합당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달라질 바가 없습니다. 그것 역시 불변하는 것입니다. 이 기정 사실을 바탕으로 놓고 생각할 때 기만적인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부도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새로운 도덕이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악마만이 우유부단하고 상변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 잘못 인도된 자, 의심스러운 무리와 어울리는 위험을 선택한 자들에게 올라미를 씌우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고상한 혈통을 이어받은 소녀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거짓의 아버지께 넘겨 주지 마십시오. 저 악마는 여러분의 멸망을 최대의 승리로 생각하는 속이는 자입니다 성급하게 굴지 마십시오.

성급하지 말라고 말씀 드리다 보니까 바로 작년에 낱펄리코 아에 사는 충실한 젊은 여성 한 분이 난처한 문제에 봉착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남자가 월남으로 즉시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출발 전에 결혼식을 서둘렀읍니다만, 그 여자가 항상 꿈꾸어 오던 그런 종류의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특별한 문제를 선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자를 사랑했고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훌륭한 양친은 3개월간의 교제로서는 상대를 진정으로 알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기다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남자가 월남에 가있는 12개월간에 서신은 최고조에 달했었습니다. 서로는 메이트 기간중에 갖던 가벼운 대화에서는 찾아 볼 수 없던 일들을 의논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이제 남자는 돌아 왔읍니다. 서로 사랑하는 애정이 주의 면전에서 결봉되었고 이 해가 가기 전에 그들의 첫 애기가 탄생할 것입니다. 또하나의 훌륭한 가정이 승영과 영생의 길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여러분에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젊은 여성 여러분, 환멸에 이르는 길은 「이번 한번만」 또는 「남들이 다 하는데」라고 말하는 소녀들에게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그럴듯 하게 들립니까? 또 하나의 낮은 함정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비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꺼야.」 입술로만 사랑하는 사람의 유혹의 몇 마디에 이기적인 욕망과 동물적인 욕구 충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이와 교회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신앙은 물론 선한 것 모두, 참된 것 모두, 거룩한 것 모두를 희생해야만 한다는 아이로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녀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상냥하게 지내십시오, 만일 잘못을 저질렀다면 고치십시오. 그 결정은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느때나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요한 계시록 3 : 20)

그러나 여러분께서 먼저 움직이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문을 열어야 할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연 그 문에 계실 것이고 준비한 공과를 줌더 잘 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걱정하는 충실한 상향회 교사와 같은 모습으로 계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과 말씀하시는 태도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과오를 범하지 않게 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 일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고 말할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소년들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니다.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않으시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동업자로서 하나
님과 함께 일을 수행할 특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말
씀드리건데 여러분 신권은 충실한 여성 동반자 없이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킬 수 없습니다. 합당한 신권 소유자로서의
가장인 동반자 없이 여성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킬 수
는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빛나가지 않는 목표로 세우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의무와 책임에 관한 토론

린제이 알. 커티스(의학박사)

「저는 언젠가 교회로 돌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
가야 한다는 압박감 의무감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잠시 동안이나마 자유를 누리렵니다.」 이
것은 190 파운드의 미남이며, 마음에 드는 용모의 소유자 글렌의
말이다.

23세, 대학 졸업생인 글렌은 활발하고 예쁘장한 로리와 갓 결
혼 했고 발전도상에 있는 어느 상사에 취직되어 일하기 시작한
청년이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교회내에서의 지위 때문
에 교회에 출석하라, 교회의 직분을 맡으라, 십일조를 내라는 등
여러가지 일을 하라는 압력을 받아 왔습니다. 이제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와 교회책임에서 방학을 얻고져 합니다. 돌
아올 준비가 되면, 나는 돌아오겠습니다.」

글렌은 해방된 안도의 한숨을 크게 쉬고는 의자에 깊이 물러
앉았다. 그는 오랜 시간동안 마지못해 지고 온 큰 짐을 내려 놓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글렌과 그의 가족을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 온 나로서
는 거침없이 뇌까리는 글렌의 말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지나친 말이였다. 나는 「글렌, 참 이상한데. 나는 네 부친이 네
머리 위로 곤봉을 휘두르면서 너를 교회에 가게 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아버지는 결코 곤봉을 휘두르거나 하시지는 않았습니니다.」

「부친께서 억지로 교회에 가게 하시던가?」

「아니요, 그렇게는 하시지 않았지만 어쨌든 교회에 가야한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었습니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기정 사실이라니 무슨 뜻인가?」

「그건 우리 집에서 실행되어 온 사실입니다. 식구 모두가 교회
에 갑니다. 실제로 갈 적마다 집회가 있었습니니다. 언젠든지 집회
에 참석한 식구를 해야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남은 생애에 는 가
지 않아도 될 만큼 교회에 다닌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간다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었던가?」

「네, 전엔 그러했던 것 같습니니다만, 매번 교회에 갔던 일을 분
개하고 있습니니다.」

「너는 결국 가야만 했었다고 하는데 그 때엔 실지로 그렇게 생
각하지 않았나?」

「선생님은 제 의도를 아실 겁니다. 적어도 저는 이제 독립했고
교회에 가야한다거나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은 느껴지지
않습니니다.」

「글렌, 네 부친이 왜 교회에 가거나 와드 감독으로서 자기 시간
을 활애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저는 의무감 때문에 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무감이라니 누구에 대한?」

「아마 스테이크 부장에게.」

「그리고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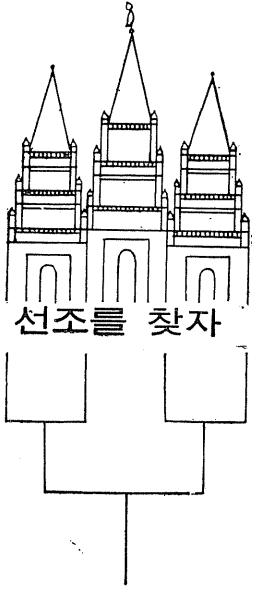
「그렇습니니다. 하나님에게.」

「그렇다면 결혼해서 새 가정을 이루어 부모 슬하에서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무에서 갑자기 벗어 난다고 생각하나?
의무라는 말을 책임이라는 말로 바꾸어 보지 않겠나? 우리가
말았던 책임에서 갑자기 해임되었을 때 달라지는 상태가 있는가?
글렌도 알다싶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의 양친께서 약간 압력
을 가하지 않을 수 없었을거야. 우리가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
해 손바닥이나 머드나무 채찍의 압력을 가끔 가하지 않을 수 없
었을 거야. 언젠나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고 지켜야 할 어
떤 법칙이 있고 생활에 실천해야 할 행위의 규범이 있는 법이야.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런 일에 대한 규칙과 순종심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압력이란 그 이상 필요가 없게 되기를 희망
하게 되는 것이지. 법률 위반자에게 있어서 경찰관이란 귀찮은 존
재요,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지. 그렇지만, 법률 준수자에게는 경
찰관은 보호자요, 친구요, 우리를 보살펴주는 사람이지. 네 부친
께서 네게 바른 원칙을 강압적이 아닌 방법으로 가르쳐주며 네가
가야할 길을 보여 준다고 해서 네 부친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나?
차라리 네 부친이 네게 나쁜 모범이라도 보여준 것처럼.」

「아이구 선생님은 모든 것을 비꼬아 말씀하시네요.」 글렌은 불
안한 듯이 의자의 손잡이를 쥐어틀고 있었다.

「내가 비꼰다고 생각하나? 나는 모든 일을 바르게 해결해 내
려고 희망해 온 사람인데, 네 부친은 내가 이제 막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하늘
에 계시는 아버지의 관할권에서 결코 벗어날 수는 없지. 만일 하
나님에게 대한 네 책임을 소홀히 하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
한다면 좋다. 그러나 네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사실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이다. 또 확신하건데 하늘에서도 벗어 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란다.」

글렌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나를 바라 보며 잠시 말을 끊었
다가 말하기를 「저는 모든 일을 아버지를 위해 해온 것 같습니
다. 저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범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
고 있으며 주님에게 바치는 헌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
다.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잘 명심하겠습니다. 주
일 날에는 전부터 해야할 일로 알고 해오던 일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시키게 될 겁니다.」



세계 계보 세미나

계보 활동은 세계적인 움직임으로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계보, 역사 및 기록 보관에 기여할 새로운 조직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거의 매일같이 듣다싶이 한다.

세상 어느 곳에 있던지 이 중대한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과거로 올라가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고는 큰 희열을 느끼고는 한다.

선조와 그들의 생활, 가족, 경험을 연구하는 것 보다 더 가치있고 매력적인 분야가 또 있을까? 강렬한 의욕을 달성하겠다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록을 수집하고 보관할 필요성도 이에 따라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자료의 수집으로 몇 년 전만 해도 망각된 상태로 있던, 또는 없다고 까지 생각했던 기록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의 수집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의 보관 문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게되었다.

얼마 전까지 계보 위원회에 자기의 계보 탐구를 의뢰해 온 사람의 수효는 그리 많지 않았으나 요즘에는 직접 찾아와서 혹은 편지로 협조를 구하는 사람이 급증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생각이 세상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겠다. 엘리야의 영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세계적인 것으로 변하는 추세를 본 우리는 이같은 생각을 지닌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해시키는 방법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를 토론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오랜 동안의 협의와 토론을 거듭한 끝에 계보 위원회에서는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람을 초청하여 세미나나 회의를 가져 중요한 문제에 관한 말씀을 듣기도 하고 토론도 갖기로 작정했다. 1969년으로 75주년을 맞는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다. 계보 위원회는 1894년 11월 정규 단체로 조직되었으며 그 이래로 여러 방면의 활동을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계보 도서관을 갖기에 이른 것이다. 이 역사적인 집회와 함께 다른 두 모임도 구상중이다.

계보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 세미나의 중요성은 주지된 바이다. 고로 우리는 개인 자격으로, 단체 대표로, 정부 기관 대표로 여러 사람을 초대하여 1969년의 귀중한 모임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다. 다음 4부분에 속하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미국 유타주에 함께 모여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4부분으로 구별은 했지만 서로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기록이나 기록 보관에 관계하는 사람이 이에 포함될 것이다. 기록 보관인, 도서 관계자, 역사가, 계보 탐구가를 말한다.

계보 위원회가 준비하는 이 행사에 관계 인사가 전원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 세계적인 지도자가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제의하는 기회이니 만치 참석하는 사람은 시급한 4분야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 대단한 기쁨을 안고 돌아갈 것이다.

행사 일정은 1969년 8월 5일부터 8일까지로 정해졌다. 여러 나라의 정부 관리를 초청할 예정이며 아울러 대회와 그 이후에 세미나에는 더 많은 사람을 초청할 예정이다. 모임 준비에 바쁜 계보 위원회는 원거리를 여행하여 본 세미나에 참석하는 분에게는 그 어느 모임보다도 더 자세한 설명이나 모임 성격, 또는 권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시간과 능력을 다하여 행사 준비 및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서 1969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를 찾았던 사람은 막대한 노력과 경비

를 들인 이 모임이 참으로 뜻있는 것이었다는 생각으로 귀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행사가 계보사업의 앞 날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일까? 세계의 지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인류의 필요 사항을 토론하게 되니, 국가간의 우의와 평화를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자부한다. 기록을 수집하여 사용하

는 단계에 이르면 대다수의 사람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1969년의 회의에 될수록 많은 사람이 참석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자세한 사항은 계보 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외설물의害

제이. 에드가 후버
(미국 연방 수사국장)

오늘날 외설물의 출판 판매는 대기업화되어 가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나 마을에서 은밀히 판매 거래되고 있는 타락한 성영화나 도색 서적은 매해 악덕 상인으로 하여금 수백만불의 순이익을 올리게 하고 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십대에서 춘화도가 끼친 해독을 정확하게 따져 본다가나 성범죄를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나 그 영향력은 극히 광대함에는 이의가 없다. 강간 사건은 놀랄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많은 부모들은 섹스 파티나 비밀회에 가담하는 청소년 소녀의 상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어떠한 범죄 행위라 할지라도 그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공식적인 표준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겠다.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춘화도는 성범죄, 변태 성욕, 성욕 도착 등의 주요 원인의 하나다.

우리의 사회가 심히 악하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덕과 고결을 멀리하고 부도덕과 퇴폐속에 파묻혔는 말인가? 우리는 도덕적으로 파산되었고 행위와 예절의 원칙을 타락하게 만들었는가? 잘못을 극복하는 정의, 악을 이기는 선을 가르치는 단순한 교훈을 버리고 있는가?

우리의 주변을 둘러 보자. 출판계, 영화계, 연예계에 있어서 개발적이고 교육적인 훌륭한 제작품이 지나치게 외설적이거나 천박하거나 근친상간 및 동성애를 지나치게 다루고 있지않은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임을 믿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개물의 합법적인 제작은 영화, 트럼프, 만화, 종이 표지 책, 사진등의 형태로 온통 나라

안에 범람하고 있는 춘화도와 비교해볼 때 오히려 가벼운 편이다. 젊음의와 호기심이 가득한 청소년들의 손에 있는 그와 같은 음탕한 것은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며 불행한 결과를 이끌어 간다.

나와 이 위험한 문제를 놓고 토론한 바 있는 경찰 간부는 음탕한 외설물이 성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동기가 된다고 분명히 언명하고 있다. 사건마다 성범죄에는 그러한 사람이 관계되어 있거나 도색 서적이나 춘화도를 가진 사람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같은 상태 아래서 감금형이 증가된다고 하는 것은 놀랄만 한 일이 못된다.

외설물의 판매 거래를 저지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는 조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법이 필요하며 법이 있는 곳에서는 강력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많은 법정에서는 그 지역 사회의 도덕적 표준에 기초를 두어 외설물이 재판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은 지역 사회의 도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강력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외설물이 발견되면 시민은 당국에 고발해야 한다. 우편으로 외설물을 받으면 우편국에 가서 따져야 한다. 시민이 적극적으로 앞장 서서 범법자는 고발해야만 한다.

외설물은 참으로 악하다. 그러나 필요악은 아닌 것이다 만일 외설물로 불법 이익을 취득하려는 악덕 상인에게 혹심한 형벌이 가해 진다면 이 악은 점차 없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삶에 있어서의 봉사

선교부장 서 현 보

신임 한국 선교부장으로 부임하면서, 봉사의 이상이란 문제를 놓고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에서 발간되는 본 잡지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며 아울러 이에 관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봉사란 명제를 놓고 생각할 때, 그것을 특정한 종류나 양과 관련하여 규정하려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적인 봉사란 생 그 자체를 인류의 복지를 위한 책임이나 의무로 생각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 주는 데서 기쁨을 찾으며 「봉사란 우리가 지상에 안식처를 얻게 된 댓가로 지불하는 세」라는 태도를 가졌을 때 그것을 진정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봉사 생활의 적은 자기 자신이 무용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이며, 더욱 나쁜 것은 이기심, 잔인한 성품, 또는 증오의 감정으로 벽을 쌓는 일입니다.

봉사 생활을 가로 막는 것이 있다고 하면 종교를 실제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다만 듣는데서 만족하고 마는 편협한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복음」속에 큰 희열이 있음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서 얻는 보상은 더욱 큰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고통으로 흠어진 생활에 화평과 안정을 선물로 가져다 줍니다. 예배를 통하여 인간은 실로 중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을 가다듬을 수 있는 여유라든지 조화를 발견한다든가 새로운 소망 또는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에 만족 하고는 더 큰 것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종교를 근본적으로 받는 것으로 국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양 면이—즉 듣는 것과 행하는 것—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마태 7: 24, 36)

두 사람의 비문을 이용하여 이상적인 봉사의 뜻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을 자기 만을 위해 살았고 금전 이외에는 중한 것이 없었던 비참한 자가 잠들고 있다. 이제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는 자도 없으며 알려고 하는 자도 없다.

다른 비문에는

언제 어디서나 약한 자에게는 힘을, 가난한 자에게는 재물을, 고통받는 자에게는 동정을, 하나님에게는 마음을 모두 바친 찰스 조지 골든 장군을 추모함.

「고통받는 자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움이란 그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여 짐을 견디어 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라고 필립 부룩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경에 나타나는 모사이야 왕은 봉사에 관하여 자기 백성을 가르치면서 :

「나는 너희들과 같이 육체로나 정신적으로나 약함을 지닌 자라. 다만 이 백성의 왕으로 뽑혀 내 부친에 의해 성별되며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왕이 땀을 주가 친히 허가 하셨으며, 한량없으신 주의 권세로 지켜 주심에, 주께서 내게 내려 주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를 다스려 왔느니라.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내가 금일에 이르도록 나의 평생을 바쳐 너희를 위하여 봉사하였으되, 너희에게서 금이나 은이나 그 밖에 어떠한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형제들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비록 너희가 전심전력을 다하여 너희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기쁨을 누리고 서로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비록 너희가 태초에 너희를 창조하시고 날마다 너희에게 호흡을 주시어 보존하시며 너희 뜻대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순간 순간 너희를 받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전심전력을 다하여 섬긴다 할지라도, 너희는 무익한 중에 불과한 것이니라.」 (모사이야서 2 : 11, 12, 20—21)

행복은 봉사한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자기 하나만을 중심으로 짊을 묶는 사람은 조그만 단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얻은 것을 남에게 주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이상을 얻지 못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가진 바를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활에 관한 율법입니다. 가르치고 우리가 이미 아는 바를 응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토록 강해진 이면에는 이 원리를 적용했다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직책에서든지 봉사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적다고 생각되는 것이든 아니면, 자기에게는 벅찬 것같이 느껴지는 것이든 또는 무엇인가 얻어야 하는 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든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얼마나 공부를 했고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높으신 지휘관」의 협조로 대의 명분, 높은 이상을 위하여 사랑과 봉사로 우리의 생을 불태우는 것이 이기심의 함정을 벗어 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듣는 자는 물론 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 용기, 힘과 신앙을 얻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리차드 엘. 이반스

관대히 넘길 것 — 언제?

진리의 말씀

윌리엄 제임스는 「현명하게 되는 방법은 무엇을 관대하게 넘길 것인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 사랑하는 사람, 친구가 없는 생활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완전치 못한 이상 두 사람 사이에 생기는 친교 또한 완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에는 상대방의 결점을 인정하기는 해야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결점을 강조하게 되면 결국은 불쾌, 불행, 환멸에 빠지고 맙니다. 결혼, 가정, 가족, 친구, 실제로 생활하면서 겪어야 하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고로 삶을 영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고 하면 이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며, 신념을 무너뜨리지 않으며 발전할 수 있나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빈정대는 투로, 혹은 다른 사람 앞에서 공공연히 시정을 강요할 경우의 결과는 별로 탐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이 반드시 해야될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덕성이나 능력에 결함이 없고 무결한 행동을 자부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다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해는 계획에서 한 치도 틀림없이 움직이고 식사도 언제나 정해진 시간에하고, 검열 준비가 된 회사처럼 집안을 깨끗히 정리 유지하고, 모든 것을 꼭 제자리에 놓아두고 언제 나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물론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 이상의 무엇입니다. 사실 기계도 이해가 필요한 것이며, 때로는 작업상의 오류도 범하는 법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나쳐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기가 그대로 넘겨서는 안되는 것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당한 시간, 장소, 분위기, 방법으로 기지와 도움을 주겠다는 태도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거나 거칠고 잔인하지 않게 친절하게 시정해 주며, 상대방을 위축당하게 하지 않고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는 가운데 성공해야 합니다. 고쳐줄 시기와 그렇지 못한 시기가 있습니다. 시정에 사용할 방법이 있으며 사용치 못할 방법이 있습니다. 「현명하게 되는 방법은 무엇을 언제 관대하게 넘길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600키로 싸이클의 서울중앙 방송국 제 2 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AFKN(미군 방송)에서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5분부터 방송되고 있습니다.